

# 생산적 사유로서의 문학비평과 문학교육

- 임화의 비평 텍스트를 중심으로 -

김미혜\*

## 1. 문제 제기

인간의 모든 사고(思考)는 사회 속에서 이루어지고 언어가 사회적 의사소통의 중요한 매개이다.<sup>1)</sup> “개인은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싶은 대로 하기 위해 자기만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을 만큼 자유롭지 않”으며, “그는 어떤 단어, 어떤 어법, 어떤 의미를 더 즐겨 쓰도록, 그리하여 다른 것들을 배제하도록 조건지어져 있는 것이다.”(올리비에 르블, 1994: 45) ‘언어’가 가치중립적일 수 없다면 ‘언어 능력’ 또한 가치중립적일 수 없다. 따라서 국어교육이 신장시키고자 하는 ‘언어 능력’의 내용은 곧 특정한 가치

---

\* 서원대 강사

1) 이 글은 언어가 사회적인 산물임을 전제로 씌어진 것이다. 가장 단순한 감탄사조차 일정한 의사소통을 의도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특정한 가치를 담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아주 개인적인 발화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언어 습득의 과정이 사회화 과정과 병행한다는 점에서 인간의 언어는 기본적으로 사회적인 가치를 담고 있다.

에 대한 선택임과 동시에 그 외의 가치들에 대한 배제를 수반하게 된다.

‘언어’를 제도교육의 장에서 다루게 될 때 부딪치게 되는 또 하나의 문제는 학교교육 자체가 이미 하나의 가치를 지향하고 있다는 점이다. 언어와 마찬가지로 교육 또한 가치중립적이지 않기 때문에, 언어교육은 제도교육의 장에서 가치문제에 관한 한 이중의 규제 속에 놓이게 된다. 일반적으로 학교는 학생을 보호하는 기능(custodial case), 사회적 역할의 선별 기능(social-role selection), 이론이나 원리, 혹은 사상을 주입시키는 기능(indoctrination), 기술과 지식을 개발시킨다고 하는 통상적인 의미의 교육 기능(education)을 담당한다. 그렇지만, ‘한 사회의 관습이나 기호를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전승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제도’로서의 학교교육은 보수적인 성격을 띠 수밖에 없다. 학교는 사회의 지배적인 가치를 반영해 왔으며 특권적 위계질서를 합리화해 왔다. 몇몇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한다면 교육은 사회통제를 위한 효율적인 기구로 기능해 온 것이다(에버레트 라이머 / 김석원 역, 1982: 33-50). 알튀세 식으로 표현하자면, 교육은 “성숙한 자본주의적 사회구성체들 속에서 지배적인 지위에 놓인 이데올로기적 국가장치”로 기능해 왔다(루이 알튀세 / 김동수 역, 1991: 75~130).

문학교육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우선 전제해야 할 것은, 문학이 언어적인 구성물이라는 사실이다. 언어를 매개로 인간 삶의 총체적인 상(像)을 담아내는 것이 문학이며, 따라서 문학교육은 언어가 담고 있는 가치의 문제와 동시에 삶의 문제에 천착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한편 제도교육으로서의 문학교육은 제도의 틀 속에서 호명된 주체들을 만나게 되는데, 문학이 모든 일상적인 이데올로기적 효과들을 꿰뚫는 인식론적 태도를 담보하고 있다면 문학교육은 그 인식론적 태도를 가르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한다. 즉 문학작품에 실현된 작가의 사유가 언어를 통해 삶의 본질적인 가치들에 접근한다고 할 때, 문학교육은 학습자로 하여금 텍스트의 언어 속에 담겨져 있는 삶의 가치들을 복원하도록 하는 것이어야 한다. 더

나아가 학습자가 텍스트 밖에 놓이는 삶의 다양한 양상들에 대해서도 동일한 작업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비로소 '제도 속에서의 문학교육'은 제도의 한계를 벗어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될 것이다.

이 글은 문학비평<sup>2)</sup>이 실현하는 사유의 특성이 무엇이며 그것이 문학교육 내에서 어떤 의미를 지닐 수 있을 것인지에 주목하고자 한다. 문학비평은 문학의 언어가 내함하고 있는 삶의 가치를 복원해 내고 그것과 소통하면서 새로운 담론을 생산하는 작업이다. 텍스트를 매개로 한 작가와 독자의 의사소통이 메시지의 일방적인 전달이 아니라 독자 스스로가 능동적으로 텍스트의 의미를 재구성하는 대화의 모형을 지향해야 한다는 것을 재론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이 글에서는 입화의 비평 텍스트를 통해, 독자가 자신의 담론을 생산하는 데로 나아가는 문학비평의 한 양상을 살펴볼 것이다. 비평 텍스트 자체의 질적 수준을 논하기보다는 대상 텍스트에 대해 어떠한 담론을 생산해내고 있는가에 주목함으로써 교육적으로 의미 있는 결론에 도달하고자 한다.

## 2. 비판적 해석으로서의 문학비평

문학적 사유의 개념을 정의하는 것은 문학의 개념을 정의하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일이다. 존재하는 모든 문학 텍스트들이 보여주는 사유의 특성을 분석해서 귀납적으로 추출해 내기란 불가능할뿐더러 수많은 예외적 경우들을 잘라내는 것을 감수하면서 문학적 사유란 '이것'이라고 선택적

2) 김성진은 문학교육의 맥락에서 비평을 하나의 장르로 볼 것이 아니라 작품 수용에서 작품에 대한 반응의 생산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 걸쳐 있는 활동으로 규정하는 것이 적절함을 논증하였다. 이 글에서도 이러한 광의의 비평 개념을 전제로 논의의 틀 개하도록 한다.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김성진(2004)을 참조할 것.

으로 규정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다. 다만 문학을, 인간 의식의 생동하는 구체적 표현이면서 인간 의식의 매체의 하나인 언어에 의하여 새로운 질서를 찾는 삶의 창조(구인환, 1993: 16-21) 혹은 ‘충만하고 중심되고 직접적인 인간 경험’이 언어의 사회적이고 형식적인 성질들 안에서 구성된 과정이며 결과(레이몬드 윌리엄즈 / 이일환 역, 1982: 60)라고 규정할 수 있다면, 문학적 사유란 ‘인간 삶의 구체적 국면에 대한 인식(의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즉, 문학이 언어를 통해 세계의 질서를 구성한다고 할 때 문학적 사유란 세계의 질서를 창조하고 해석하는 행위와 관련된다. 문학이 ‘眞’의 문제를 다룬다고 한다면 문학적 사유는 또한 그 ‘眞’을 염두에 두고 행해지는 사유가 될 것이다.

書名을 特히 文學의 論理라 부친것은 評論이란 形象的인 意味의 文學에 對하여 論理的인 意味의 文學이라 생각되기 때문이다. 그럼으로 『장르』로서의 文學의 特性이 文學의 形象이라면 評論으로서의 文學의 特性은 文學의 論理라고 말할수있지않을까?(임화, 1940)<sup>3)</sup>

비평의 문제로 넘어간다면 문학적 사유는 다분히 체계적이고 논리적이 될 것을 요구받는다. 비평은 다분히 정서적 경험에 호소하는 문학에 대해 논리적으로 설명할 것을 요구받으며 따라서 언어를 통해 구성된 삶의 질서에 대한 보다 복합적인 접근을 시도한다. 문학비평은 주관이면서도 객관이고 논리이면서도 감성인 사유의 방식으로 문학이 담고 있는 ‘삶’의 본질에 접근해 가는 사유의 방식을 보여준다.

문학비평은 기본적으로 텍스트를 읽는 행위에서 출발한다. 여기서 텍스트를 읽는 행위란 텍스트의 담론을 이해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텍스트

3) 임화(1940)의 서문 중에서 이하. 이 책의 인용 부분은 본문의 표기와 띄어쓰기를 그대로 따랐음.

를 매개로 작가와 대화를 나누는 것까지를 포괄한다. 그런데 문학비평은 단순히 텍스트의 일차적인 의미를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서 문학 텍스트 속에 내재되어 있는 의미를 이해하는 것은 물론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하고 텍스트가 무엇인가를 은폐하고 있다면 그것을 밝혀내는 작업을 해야 한다. 비평이란 텍스트 속에서 은폐된 의미까지를 밝혀내는 작업이어야 하며 그런 의미에서 비평은 비판적 해석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

한편 텍스트 자체가 역사적인 산물인 만큼이나 텍스트를 해석하는 작업 또한 역사적인 과정이다. 텍스트의 생산과 관련된 역사적 맥락을 고스란히 재현한다는 의미에서가 아니라, 해석 상황의 변화된 문학적 경험 지평에 상응하는 ‘의미’를 찾아낸다는 의미에서 텍스트는 역사적 산물인 것이다.

‘예술비평을 가능한 한 역사적 입지점으로 가져가는 것, 즉 모든 예술작품이 내면을 향해서는 그 자체 속에서 완결된 것이어야 하지만, 그것을 그 생성과 존재의 상황에 따라서 하나의 계열에 속하는 것으로서 관찰하고, 이전에 존재했던 것과 그 결과로 나온 것 또는 앞으로 나올 것으로부터 파악하는 것이 예술비평의 과제이다(노버트 메클렌부르크 / 허창운 역, 1991: 95).

물론 비평이 텍스트의 ‘유일한’ 의미에 대한 동화의 과정이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논자들도 없지 않다.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진정한 비평이란 동화(同化)의 과정이어야 하며 자기 내면에서 발견할 수 없는 것을 외부에서 흡수하려는 욕구이고 “사물을 실제로 있는 그대로 그 자신 속에 보는 일”이 된다.<sup>4)</sup> 대체로 이러한 관점은 비평을 바라보는 전통적 입장에 대응

4) 『현대비평의 이론』(조르즈 플레 위음, 김봉구 옮김, 홍성사, 1979)은 이러한 비평관

한다. 전통적 입장에 따르면 텍스트 읽기는 감정이입의 과정이며 텍스트에의 수동적 몰입이 된다. 또한 텍스트는 하나의 인식 모델로서 독자에게 ‘계시’를 내리는 절대적 지위에 놓이게 된다. 진보적인 해석학 이론은 낮설게 하기를 전통적인 수용방식에 반대하는 해석처리방식으로 제시한다. 여기서 말하는 해석처리방식은 이해하여 제 것으로 만드는 일과 비판적으로 거리를 두는 일을 변증법적으로 매개하고자 하는 해석처리방식이다. 이를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노버트 메클렌부르크 / 허창운 역, 1991: 69).

전통적 입장	비판적 입장
비합리적	합리적
전통에 대한 순응적 관계	전통에 대한 비판적 관계
체험	인식
감정이입	낮설게 하기
직접성	반성
예배, 관조, 향수	비판
텍스트에의 수동적 몰입	반응적인 해석행위
마적인 속박(사로잡힘)	공화주의적 자유
인식 모델로서의 계시	인식 모델로서의 대화
감정	오성

문학비평은 “문학이라는 형태의 예술적 창조행위와 수용행위에 대한 비판적 반성적 사색”이며, 문학비평이 사색의 대상으로 삼아야 하는 ‘문학의 창조행위와 수용행위’는 ‘문학예술의 창조와 수용에 관계되는 문화의 넓은 국면들’로 확대된다. 요컨대 문학비평은 문학현상을 대상으로 행

(批評觀)을 지닌 논자들의 글을 수록하고 있다. 이들은 텍스트의 의미는 작가의 의도와 완전히 일치하며 따라서 문학 텍스트를 읽는 경험은 작가의 의도를 이해하고 그것을 내면화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해지는 비판적이고 반성적인 사유이다(도정일, 1994: 266). 그리고 비평을 통해 도야될 수 있는 사유는 “자신과 자신을 타자와 연결해 주는 사회와 역사에 대한 총체적인 인식과 판단”을 포괄하는 것이다(김성진, 2004: 35).

### 3. 문학비평의 실제 — 임화의 「방황하는 시대정신」

문학 텍스트는 ‘전부’를 말하지 않는다. 텍스트의 빈틈을 메우는 것은 해석자, 즉 독자의 몫이다. 비평은 곧 비판적인 해석으로 텍스트의 틈을 메우는 과정이며 ‘왜’를 설명하는 작업이다. 텍스트를 매개로 작가를, 작가가 창조한 세계의 질서를 만나고 독자 스스로의 담론을 생산하는 과정이 바로 비평의 과정인 것이다. 리비스에 따르면, 비평가가 삶에 대한 자신의 온 삶의 가치를 건 책임 있는 판단을 내리고 또 이를 계기로 자신의 가치관을 돌이켜 보고 수정하게도 되는 작업이 참된 비평이라고 한다(김영희, 1993: 161). 문학이 삶에 대한 진지한 통찰에 필요한 사유를 보여주며 따라서 문학에 대한 비평은 이런 사유를 훈련하는 가장 적절한 ‘학문’이 된다는 것이 리비스의 일관된 소신이었다(김영희, 1993: 141).

비평이 비평가의 새로운 텍스트를 전제한다고 할 때 그 텍스트는 대상 텍스트와의 대화를 통해 비평가 자신이 환기한 모든 담론을 담아낼 수 있다. 그것은 비평가 개인의 아주 사적인 경험에 대한 기술일 수도 있으며 텍스트에 대한 지극히 이론적인 논평이 될 수도 있다. 하나의 비평이 전적으로 옳다거나 그르다는 식으로 재단하는 것은 옳지 않다. 다만 보다 타당한 비평이 있을 뿐이다. 여기서 비평의 상대주의로 빠질 수 있는 위험에 봉착하게 된다. 문학비평이 주관이면서 객관이라 함은, 비평이 가치 중립적일 수 없다는 문제와 연결된다. 그것이 실제비평이건 이론비평이

건 간에 비평을 한다는 것은 비평가의 가치를 대상에 개입시키고 실천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가치판단을 수반하는 것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한 비평적 판단이 한 개인의 것이면서 그 속에 이미 다른 이들과의 협동을 내포하고 있다고 본다면 비평은 보편성과는 다른 차원의 객관성을 상정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레먼 셀던은 과학의 객관성을 패러다임의 틀로 설명하는 쿤의 논의를 인용하면서 비평 역시 그런 의미에서 객관성을 가질 수 있다고 설명한다(레먼 셀던 / 김용규 역, 1995: 45-69). 다만 여기서 유의할 것은 문학비평의 객관성이 단순히 다수결의 문제로 귀결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 장에서는 임화의 비평 텍스트를 통해, 텍스트 해석의 과정에서 해석자 자신의 담론이 어떻게 구현되는지를 살피도록 한다. 1938년에 씌어진 「彷徨하는 時代精神—丁丑文壇의 回顧」(임화, 1940: 239-256)를 통해 임화는 당대의 주요 작가들에 대한 평가를 내리고 있다. 이 글은 대상 텍스트를 분명히 가지고 있지만 임화 개인이 지니고 있는 문학관을 벗어나지 않는다. 대상 텍스트를 해석하는 데 있어 해석자의 문학관이 개입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비평 행위를 통해 대상 텍스트와 대화하는 작업은 해석자의 문학관을 강화하거나 또는 수정한다. 특히 비평이 비판적 해석이어야 한다고 했을 때, 그 과정은 해석을 통해 텍스트 생산과 수용 전체의 맥락에 걸친 삶의 가치들을 확인하고 텍스트의 진실을 밝혀내는 작업이어야 한다. 시대적 상황에 대해 민감하게 대응하는 임화의 비평은 그런 의미에서 문학현상에 대한 비판적 해석의 일례를 보여준다.

「방황하는 시대정신」에서 임화는 1937년의 문단을 두고, “左右 어떤 翼을 勿論하고 最近 朝鮮文學의 趨向이 불안이라든가 混沌이라든가 無方向이라든가의 表現으로 形容할수있었고 統一된 方向은 상실된지 오래”라고 평가하고 있다. KAPF의 해체 이후 통일된 방향성이라는 것은 찾아볼 수 없게 되었고 “지난 一年間 重要な 몇몇 作家들을 通하여 表示된



것은 思想이라기보다는 現代朝鮮青年의 信念化되지않은 氣分이나 心理의 反映이라 볼수밖에 없다.” 당대의 리얼리즘 논의에 있어 상당한 수준을 선취했던 임화가 보기에 이상이나 박태준의 소설은 신념화되지 못한 개인적인 기분을 묘사한 것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다. 임화는 구체적인 논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文學乃至 作品傾向의 混亂이란 思想 그것의 結果라는 것을 잊어서는 아니된다. 다시말하면 文學이란것을 時代精神의 重要한 傳聲機關이란 點에서 理解할 必要가 있다.”고 강조한다. 문학이 치열한 시대정신을 담고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문단은 그렇지 못함을 지적한 것이다.

임화의 이러한 문학관은 다음과 같은 언어관에 기반하고 있다.

먼저 우리는 言語라는 것이 오즉 現實의인것의 反映·表現이란뜻을 이야기 해왔다. 즉 言語란 單純한 音聲이 아니라, 一定한 現實의內容으로 말미암아 組織化된 音聲, 그러므로써 그것은 不可避的으로 恒常 무엇이고 意味하고 있으며, 그 意味하고 있는 바는 곧 人間의 思惟를 通하여 抽象化된 各樣의 現實이란 것이다.

다시 말하면 言語는 이야기될 對象인 現實의諸條件에 의하여 規定된다 (임화, 1940: 600).

언어는 현실의 반영이며 따라서 언어를 매개로 한 예술인 문학은 당연히 현실적 제조건에 의해 규정된다. 1937년의 문단이 뚜렷한 시대정신을 보이지 못한 것은 따라서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고 보아야 한다. “그것은 누구에게나 生活에對한 確信이 없고 明日에 對하여 偶然을 기대리는 外엔 絶望밖에 갖지않은 時代 彷徨하는 時代의 人間精神의 表現”이었던 것이다. “때는 너무나 憂鬱한 時代다.” 그러나 임화는 그 우울한 시대에 쓰여진 텍스트들에 대한 비판적 해석을 통해 ‘상실된’ 시

대정신을 자극하고자 한다.

李箱은 結局 無能한 『인테리』는 도야지와 달음이 없다는것을 率直 보인것이다. 뿐만아니라 도야지中에도 아주 無氣力한 病든 도야지라는것을 強調한것이다.

『終生記』나 格外柄의 李箱의 小說가운데 『인테리』의 屍體가 累累하다 할수있다.

이點에서보면 李箱은 極度の 主觀主義者였음에 不拘하고 물구나무슨 形態의 『레알리스트』였다.

이견이 있을 수 있겠으나, 임화가 이상을 물구나무 선 리얼리스트로 평가한 것은 지식인에 대한 이상의 냉소적인 시선이 당대의 지식인들을 적절하게 묘사하고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당시의 무기력한 지식인상을 이상이 ‘주관주의’적으로나마 잡아냈다는 사실에 점수를 준 것이다. 지식인의 무기력한 일상을 그린 것은 이상의 몫이었지만 그를 물구나무 선 리얼리스트로 평가한 것은 비평가인 임화의 몫이었다.

“心理主義的 路線을걸어온 朴泰遠氏는 아즉 現代心理主義의 『에피고-넴』임을 면치 못했다.”로 운을 떼면서 임화는 세태묘사가로서의 박씨가 “비로소 現實을 評價하기 시작했다”으므로 주목할 경향이라고 평가한다. 하지만 박태원이 “思想的으로 얼마나 成熟 深化하였는가”에 대해서는 대답을 피한다. 세태묘사에는 충실했지만 거기서 더 나아갈 수 있을지는 지켜보아야 할 일이라는 것이다. 박태원의 작품을 평가하면서 임화는 디킨스나 고고리 같은 작가들을 염두에 두고 있다. 그들은 박태원과 같은 세태묘사가이면서도 “제법 人間社會의 運命이라든가 俗物에 대한 諷刺라든가를”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임화는 대상 텍스트 밖에서의 풍부한 문학체험들을 끌어와서 대상 텍스트의 한계를 지적한다. 청계천변에 대한 묘사를 이해하는 데에서 나아가 세태묘사를 하고자 하는 작가에게 일종

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이태준을 언급하면서 임화는 그의 소설에서 “한개 感傷家로서밖엔 思想家로서의 作家의 『모랄』이란 것을 발견할수는 없다”고 말한다. 그런데 이는 이태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思想이란것을 傳統的으로 輕視해온 所謂 純文學作家의 가장 큰 缺陷의 하나”라는 것이다. “李氏에겐 『체흠』 流의 哀愁가 있으며 “장마 같은 小説은 純全한 身邊記述이면서도 時代的 霧圍氣에 相當한 濃度로” 부딪혔다고 평가한다. 「복덕방」에 등장하는 노인들은 “靑春과더부러 自己의 世界를 喪失”하였는데 이것을 “現代朝鮮靑年의 絶望感의 한 反映”으로 읽어내는 것은 또한 비평가의 몫이다. 텍스트에 내재된 세계 너머에서 작가가 염두에 두었을 세계의 원형을 복원해 내려는 시도가 없었다면 「복덕방」의 노인들로부터 당대 청년들의 절망감을 읽어낼 수 없었을 것이다. 작가가 애초에 의도했던 것이 단순히 복덕방을 둘러싼 노인들의 삶에 대한 묘사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통해 당대의 삶을 총체적으로 복원해내려고 한 비평적 시도가 오독이라고 매도될 수는 없다. 비판적 해석을 통해 오히려 비평가가 텍스트 속에 잠재되어 있는 삶의 진실을 ‘생산해 내었다고 보아야 하며 이것이 바로 생산적 사유로서의 비평의 한 양상이 되는 것이다.

임화가 KAPF 작가 중에서 “注目할 創作態度를 表示한 作家”로 들고 있는 김남천에 대한 비평에서 임화는 김남천의 창작과 비평을 연결시키고 있다. 김남천의 소설은 고발문학론에 근거하고 있지만 “作品들은 作家의 論文이 말하는 程度보다 熱度가 不足하고 따라서 『태-마』에 비겨 객적은 描寫가 作者의 主張을 덮고 있”다고 지적한다. 임화는 “『레알리스트』의 作品에서 내가 받은 愉樂은 描寫된 現實의 價値같다”고 고백한다. 不定될 現實을 告發한다는 作家의 精神”이 현대문학의 소중한 기초이기는 하지만 작품 속에서 묘사되는 생활현실의 가치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충고하고 있는 것이다.<sup>5)</sup>

임화의 비평은 그 자신의 문학적 소양과 사상적 기반 위에서 풍부하게 움직인다. 단순히 감상비평에 그치지 않으며 실제비평 속으로 이론비평이 끼어드는 양상을 보여준다. 네 명의 작가를 평가하는 임화의 기본적인 출발점은 ‘리얼리즘’이지만 각각의 작가를 평가할 때마다 약간씩 변화된 틀 속에서 움직인다. 이상을 평가하면서 임화는 지식인에 대한 그의 냉소가 리얼리즘적일 수 있다고 말한다. 흔히 이상의 문학세계를 모더니즘으로 평가하지만 모더니즘 역시 뒤틀린 근대의 일상을 파고든다는 점에서 ‘시대정신’의 구체적 실천의 한 양상을 보여준다. 임화는 이상이 일그러트린 지식인의 일상으로부터 당대 지식인의 한 전형을 읽어낸 것이다. 박태원의 소설을 읽으면서 그는 서구문학에 대한 이전의 경험적 지식들을 끌어들이고 있다. 박태원이 세태묘사를 계속하고자 한다면 그가 지향해야 할 작품세계를 선취한 작가로 고고리나 디킨스를 들고 있는 것이다. 또한 박태원의 소설을 읽으면서 동시에 세태소설에 대한 하나의 상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태원의 「복덕방」의 노인들에게서 당대 청년들의 상실감과 절망감을 읽어낸 것 역시 비평가로서의 임화가 텍스트 읽기를 통해 자신의 담론을 생산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김남천의 소설 텍스트를 그의 비평 텍스트와 대비시키면서 임화는 또한 소설이 묘사하는 현실은 ‘가치 있는’ 것이어야 한다는 결론으로 나아간다. 양상을 달리 하고 있기는 하지만 임화는 네 명의 작가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텍스트와의 대화를 통해 오히려 자신의 담론을 만들어내는 데 더 많은 관심을 보인다. 애초에 당대의 문단이 방향성을 상실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하는 의도 때문이었겠지만, 임화의 비평은 텍스트와의 대화를 통해 새로운 담론을 생산해내는 데로 나아가고 있다. 다음 장에서, 이를 보다 상세히 살펴해보도록 하자.

---

5) 이외에도 몇 명의 작가가 더 논의되고 있지만 이 글에서는 살피지 않기로 한다.

#### 4. 생산적 사유로서의 문학비평

##### — 실제 비평을 통한 리얼리즘론의 재생산

임화가 시를 쓰면서 한편으로 비평에 참여한 것은 김기진의 「대중소설론」(《동아일보》 1929. 4)을 맞아 쓴 「탁류에 항(抗)하여」(《조선지광》 1929. 8)라는 평문에서부터이다. 이어 「김기진 군에게 답함」(《조선지광》 1929. 11)으로 김기진과 논쟁을 하게 되는데, 임화는 김기진의 논조가 투쟁 정신을 제거한 타협주의라고 비판했다. 이를 계기로 벌어진 구 KAPF(박영희, 김기진)계와 소장파(제3전선)의 세력 다툼에서 후자의 강경 노선이 KAPF의 헤게모니를 쥐게 된다. 그러나 만주사변(1931) 이후 객관적 정세의 악화와 KAPF에 대한 두 차례에 걸친(1931, 1934) 검거 사건을 거치면서 1935년에는 KAPF가 소멸하기에 이른다. KAPF의 주력부대를 이끌었던 임화는, 이후 순문학 일변도의 문단에 대해 제동을 거는 한편 문학사를 정리하는 작업을 계속해 나갔다(김윤식·김현, 1996: 274). 그리고 과학적인 문학이론의 수립을 위한 노력의 결과 「방황하는 시대정신」을 집필하기에 앞서 「사실주의의 재인식—새로운 문학적 탐구에 쫓겨하여」(《동아일보》, 1937. 10. 8~14)라는 탁월한 연구 성과를 제출하기에 이른다.

리얼리즘론을 새로이 정립하려는 임화의 노력은, 당대 문학을 주관주의와 객관주의의 양대 편향에 빠져 있는 것으로 진단하는 데서 출발하고 있다. 「사실주의의 재인식—새로운 문학적 탐구에 쫓겨하여」에 이르러 그는 「객관 현실에 대한 충실한 묘사에도 원칙적으로 작가의 주관이 작용하고 있음을 인식하기 시작한다. 한편 그는 “주관주의는 사물의 본질을 현상으로서 표현되는 객관적 사물 속에 현상을 통하여 찾는 대신, 작가의 주관 속에서 만들어내려는 것”이라고 규정한다. 그리고 “주관주의적 일탈이란 파행적 리얼리즘과는 다른 그러나 본질적으로 동일한, 高次의 리얼리즘으로부터 유리하는 노선의 한 분파”라고 말하면서 주관주의와 객관

주의—과행적 리얼리즘—를 동시에 비판한다(임화, 1940: 89). 임화가 이러한 비판을 통해 강조하고 싶었던 바는, “결국 현실주의는 ‘객관적 현실 그것과 예술적, 생활적으로 교섭함으로 상실된 자기를 찾고 소시민으로서의 자기를 재교육하는 것’이라는 것”이다(신두원, 1991: 32).

결국 임화에게 리얼리즘이란 “객관적 인식에서 비롯하여 실천에 있어 자기를 증명하고 다시 객관적 현실 그것을 개변해가는 주체화의 대규모적 방법을 완성하는 경향”으로 규정된다(임화, 1940: 94). 객관적 현실과 교호하는 작가의 주관은 인정하면서 객관과 주관의 변증법적 결합으로서의 리얼리즘으로 나아간 그의 논의는 「방황하는 시대정신」이라는 제하의 실제 비평 속에서 약간의 변형을 거쳐 재확인된다.

임화는 「날개」, 「종생기(終生記)」를 비롯한 이상의 소설에서 정당하지 못한 현실 속에서 왜곡된 지식인의 상을 읽어내고 있다. 그리고 그는 “이 점에서 보면, 이상은 극도의 주관주의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물구나무선 형태의 ‘레알리스트’였다”고 평가한다. 이는 이상이 “부정적인 자기 폐쇄를 통해 정당하게 사회와의 통로를 차단당한 인간의 파산을 여실하게 보여주었다”(김윤식·김현, 1996: 312)는 평가와 동례에 놓인다.

이상은 「날개」와 「종생기(終生記)」에서 현실에 대한 대응력을 차단당한 채 갈등하고 분열되어 있으면서도 적절한 방식으로 그 해법을 찾지 못하는 무기력한 지식인의 상을 그리고 있다. 그러나 그의 소설 어디에도 현실은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또한 이상 자신은, 지식인은 그 시대에 걸맞게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한다고 강변하지 않는다. 그러나 임화는 이상의 소설을 논하면서 자신의 현실관과 지식인관을 피력한다. 임화는 당시의 현실에 대해, “지식이 비판의 연장 혹은 행위의 지침으로서 소용되지 않는한, 희망을 달성시키는 조선, 고민을 완화시키는 양약도 보장되어 있지는 않다.”고 지적한다. “머리 가운데 명멸하는 상념으로 입술 위에 오르내리는 설화로밖에 지식이란게 활용되지 않는다면 그와 도야지

는 형제라는게 억울하면 사촌뻘은 되고말 것"이며, 현실에 가로막혀 있는 지식인들의 실천이, 여전히 제몫을 다하지 못한다면 그들은 "시체"에 다름없다는 것이 임화의 생각이다. 그런 임화가 보기에 이상은 '극도의 주관주의자'일 수밖에 없지만, 당시의 절박한 현실을 뒤뜰린 지식인의 자기분열로 형상화한 이상의 소설들은 현실 속에서 실현 가능한 형태의, '물구나무 선' 형태로나마 리얼리즘을 실현해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즉 작가의 주관이라는 것이 인정되는 순간 임화에게 리얼리즘은 보다 유연한 예술적 실천이 되었고, 그런 그에게 이상 또한 소극적인 의미에서는 리얼리스트일 수 있었던 것이다.

박태원의 소설 세계를 이루고 있는 기본 테마는 서울 서민층의 부침이다. 서울 서민층의 가난과 그것으로 인한 슬픔은 식민지 치하 조국의 가난에 대한 슬픔으로 확대되어 간다. 「천변풍경」은, 그의 현실 인식이 탁월하게 드러나 있는 작품으로 평가된다(김윤식·김현, 1996: 316-317). 1936년 8월부터 10월, 1937년 1월부터 9월까지 《조광》에 연재되었던 이 작품은, 1년 동안 청계천변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다양한 서민의 생활 모습을 50개의 절로 나누어 서술한 소설이다. 기교 작가나 모더니즘 작가로 평가되기도 하는 박태원은, 이 소설을 통하여 단순하고 미묘한 것까지도 가장 풍부하고 흥미 있게 이야기하는 작가적 역량을 보여준다. 1930년대 서울에 거주하던 각종 직종의 인물들이 광범위하게 등장하는 이 소설은 특정한 서술자가 없는 등 자칫 산만해지기 쉬운 요소들을 지니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작가는 50개의 삽화를 여인들의 집합소인 빨래터와 남성들의 사교장인 이발소를 양극으로 집중 확산시킴으로써 사람들의 일상적인 생활양식과 생태를 재현하는 데 성공한다. 「천변풍경」을 세태소설로 평가하는 것은, 세태나 도시의 풍속을 세밀하게 묘사하였다는 점이라 아니라 세밀한 세태의 추사를 통하여 당대적 진실을 추구하려는 작가 정신에 근거한 것이라 하겠다(이재선, 1989).

임화는,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과 「트립벨」 등의 전작에서 박태원이 현대 심리주의의 에피고넨에 머물러 있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그 자신이 “이해동안에 가장 힘드리고 또 힘드린보람을 나타낸佳作”으로 평가하고 있는 「천변풍경」에 이르러 비로소 “문학적사춘기를 건너”셨다고 한다. 임화는, 「星群」, 「聖誕祭」 등의 소설을 거론하면서 박태원이 소박한 감상주의에 빠져들지 않도록 경계한다. 적어도 박태원이 세대묘사가로서의 면모를 보인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그러한 경향을 계속해서 견지하고 발전시키도록 독려하고 있는 것이다. 박태원이 현실에 대해 평가하기 시작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처럼 열렬히 환영하면서도 임화는 그의 세대 묘사가 갖는 한계를 지적함으로써 다시금 자신의 원칙을 확인한다. “청계천에다 『케블』을놓고 사진기를 이동시키는외의 기능은 이즉 박씨에게서 발견할수없다.”는 것이 박태원의 생각이다. 그러나 세대묘사라는 것, 현실을 평가한다는 것이 어떤 원칙이나 기준을 가져야 한다고 할 때 박태원에게는 그 원칙이나 기준이 누락되어 있다는 것이다. 단순히 청계천변의 1930년대를 살아가는 인간 군상들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 “객관적 현실 그것과 예술적, 생활적으로 교섭함으로 상실된 자기를 찾고 소시민으로서의 자기를 재교육하는 것”이 리얼리즘이라고 보는 임화의 관점에 선다면, 「천변풍경」은 객관적 현실과의 ‘예술적, 생활적’ 교섭을 통한 뚜렷한 세계관을 세우는 데 실패한 작품이 된다. 주관과 객관의 변증법적 지향이 리얼리즘의 진정한 조건이라고 생각한 당시의 임화는, 이상의 작품을 읽으면서 주관주의를 경계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천변풍경」을 읽으면서 객관주의 또한 경계하고 있다.

이태준의 「복덕방」은 1937년 3월 《조광》 17호에 발표되었던 소설이다. 1930년대에는 극한적인 문단 상황에도 불구하고 문학이 현실을 외면하고는 존재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최소한의 허용된 여건 하에서 현실 참여적인 작품을 발표한 작가들이 있었다. 이태준도 그 중의 한 사



람으로, 항일적인 발언을 하고 있으면서도 현실 참여적인 문학이 빠지기 쉬운 단선적인 모습과 경직성을 극복하고 있다는 점에 그의 소설의 의의가 있다. 그는 다양한 소재와 제재에서 결코 어떤 획일적인 틀에 맞추어 단언할 수 없는 다양한 주제의 작품을 창작하였다. 그리고 당대의 고달픈 삶 속에서 가난과 고통이 어디서 오는 것인지, 그 원인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시대의 다른 작가들과 구별된다.

「복덕방」은 그런 그의 대표작으로 현대화 과정에서 잃어버리고 있는 인간성, 옛것 중에서도 소중한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지만 단순히 감상적이기만 한 작품은 아니다. 이태준의 다른 소설들이 그렇듯이 당시의 삶이 지닌 고통과 갈등 속에서 다양한 인간 군상들의 삶의 모습을 치밀하면서도 자연스러운 구성을 통해 잘 형상화해 놓고 있다는 점에서 그의 문학의 본령을 보여주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김윤식·정호웅, 1993; 김윤식·김우중, 1989).

그러나 임화는, 이태준이 현실 평가의 눈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그의 작품에서는 “실로 한개 감상가로서박젠 사상가로서의 작가의 「모랄」이란 것을 발견할수 없다.”고 말한다. 이는 “사상이란것을 전통적으로 경시해온 소위 순문학작가의 가장 큰 결함”이며 이를 이태준 또한 공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임화는 몇몇 작품에서 이태준이 “시대적분위기에 상당한 농도로 부딪쳤”던 것에 주목하면서, 이태준의 몇몇 근작에 나타나는 신비적 경향은 현실의 압력이 그의 인생 태도에 작용한 결과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한다. 임화가 당대의 현실에 기반해 비평작업을 수행하려 했음을 읽어낼 수 있는 대목이다. 현실의 압력을 분명히 인식하지 못하면 “이씨의 예술은 차차로 『레알리즘』에서 머러갈것이고 고뇌로부터 신비어로 승화하는 암담한길이 준비될” 것이라는 임화의 우려에서, 그가 이태준에게서 리얼리즘의 흔적을 읽어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복덕방」의 노인들에게서 굳이 당시 조선 청년들의 절망감을 읽어내

려 했던 것은, 공통된 신념을 갖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당대의 소설가들과 지식인들에 대한 임화의 우려가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자신과 여러 차례 지면상에서 논쟁을 벌인 적이 있었던 김남천을 논하면서, 임화는 김남천의 소설과 평론 둘 다에 주목한다. 이는 비평을 통해 제시한 이론을 창작을 통해 실천했던 김남천의 특징적 면모를 고려한 것이다.

‘자기 자신의 대한 의무의 자각’을 내세워 집단적 유대 및 행동이 제한된 상황에서 질서적 모랄을 건설하려면 우선 ‘주관적 자각의 몸가짐’이 필요하다는 이원조의 이른바 ‘포오즈론’에 대한 비판의 성격을 띠는 김남천의 고발문학론은 1937년에 들어 본격화된다. 이는 사회주의 리얼리즘을 비판하고 건전한 리얼리즘 즉 ‘시민의식’으로의 지향을 선언한 것이다. 그 방법이 작가의 고발정신이다. 김남천의 이론에 기대면 정치주의도 지식계급도, 민족주의도 모조리 고발, 비판되어야 하며 고발정신이 곧 시민정신이라고 주장된다. 따라서 새로운 문학은 프롤레타리아 문학이 아니라 ‘시민문학’이 되는 셈이다(우한용, 1990). 임화는 고발문학론이 ‘창작방법 논쟁’의 추상성을 탈피하여 구체적 현실에 육박하였다는 점을 일단 높이 평가했다. “우리 문학을 관조주의와 주관주의의 미몽에서 각성케 하는 최초의 경종이었”고, “더욱이 장구한 창작방법논쟁의 숙폐인 추상성을 刺衝하고 조선적 현실의 궤도 위로 이끌어” 왔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발문학론은 “작가에게 현실에의 심오한 침잠을 지시하는 대신 미리 준비된 한개 현실 평가—더욱이 그릇된 평가—를 투여한 점”(임화, 1940: 61)이 한계로 지적된다. “김씨가 리얼리즘 가운데 허용한 유일의 주관적인 것이 ‘고발의 정신’이었고 ‘소시얼리즘적 의식이 아니었던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더욱이 논자는 이것을 객관적 존재의 반영이라 고조하였다.” 그러나 “자본제적 현실의 객관적 반영은 ‘고발하는 정신’에 그쳐서는 안 되는 것이다(임화, 1940: 65). 임화는, 김남천이 주관을 배제하려고

하면서 잘못된 주관관을 개재시키고 있다고 비판한다. 객관과 주관의 유리와 현실에 대하여 무력한 주관관을 창작의 정신으로 삼는 것을 문제삼고 나아가 올바른 주관, 현실에 합당한 올바른 세계관과 객관 현실의 관계를 소망하고 있는 것이다(신두원, 1991: 35-37).

『방황하는 시대정신』에서도 임화는, “부정될 현실을 고발한다는 작가의 정신”이 결국 “다분히 주관주의적방법으로 작품가운데 전개”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또한 작품 속에 묘사된 현실이 결국 고발되어야 할 것이라면, 그것이 어떤 가치를 지닐 수 있겠느냐고 반문한다. 작품 속에 묘사된 현실이 중요할 뿐 아니라 그 속에 현상된 사상도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김남천의 작품은 부정되어야 할 현실을 묘사하는 데 치중한 나머지 객관적 현실에 기반한 올바른 사상을 형성하지 못하는 한계를 보인다는 것이다.

결국 임화는 이상의 주관주의와 박태원의 객관주의를 비판하고, 이태준과 김남천에게 현실에서 건져 올린 올바른 ‘사상’을 요구하면서 자신의 리얼리즘론을 확인하고 있다. KAPF의 해산 이후, 문단이 공통된 지향을 상실했고 정치적 입장을 확연하게 드러내는 비평작업이나 창작활동이 현격하게 제약을 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임화는 실제 비평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재확인한다. 그는, 1937년의 문단 상황을 ‘방황하는 시대정신’으로 규정하고 시대의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객관적 현실에 기반한 올바른 사상을 형상화하는 데로 나아가도록 동시대의 작가들을 독려하고 있다. 임화는 객관적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주관에 함몰되거나 동시대의 사상이 나아가야 할 정방향을 담아내지 못한 채 객관의 묘사에 치중하는 것들 다를 비판한다. 실제 비평 속에서 그가 재확인한 리얼리즘은 객관주의와 주관주의의 양 편향을 극복하면서 “현실 속에서의 행위(실천)를 통해 과학적 세계관과 현실을 결합시켜 현실의 본질을 반영하고, 이를 통하여 왜곡된 주체를 재건하는 예술적 실천의 방법론”이다(신두원, 1991: 46). 임

화에게 있어 텍스트에 대한 비평은, 결국 그 자신의 담론을 확인하고 (재) 생산하는 작업이었다.

### 5. 맺으며 — 문학비평의 문학교육적 의의와 한계

이제 우리는 학생들이 텍스트의 위력을 분석하고, 그것을 그들 자신의 효용에 맞게 변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어야 한다. 학생들이 스스로 텍스트를 (생산하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로버트 슬즈 / 김상욱 역, 1995: 27).

인간은 사회적 존재이며 문학이 담고 있는 인간의 삶 또한 사회적 관계의 총체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텍스트를 읽고 있는 독자 역시 사회적 관계의 총체이다. 비평이 문학교육의 장에서 사고될 때 텍스트를 둘러싼 다양한 사회적 관계들이 중첩되어 나타나게 되는데, 문제는 문학교육이 그 속에서 어떤 사유의 양식들을 실현시킬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비평은 문학 텍스트를 매개로 삶의 가치에 접근하고 그것에 대한 진지한 사유를 진행하고 새로운 담론을 생산하는 과정이다. 따라서 비평은 학습자를 '생산자'의 위치로 끌어올리면서 학습자 자신의 삶과 문학교육을 연결시킬 수 있는 중요한 축이 된다. 비평은 '생산적 사유'를 훈련시킴으로써 학습자 개인의 삶 속으로 파고드는 실천적 교육을 가능하게 할 수 있으며, 비평을 통한 사유의 발달은 언어 능력의 신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

문학 현상은 텍스트를 사이에 두고 작가와 독자가 상호 역동적인 활동을 통해 이루어 가는 소통 작용이다. 그 소통 과정에서 독자 스스로가 주체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문학교육이 학습자를 생산적 주체로 길러내야 한다. 문학교육은 문학텍스트를 이해하고 감상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 나아가 그 텍스트에 대한 평가의 능력을 길러 줌으로써 문학작품을 향유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구인환 외, 1988: 341). 그렇다면 궁극적으로 문학교육은 문학적 사유를 통해 학생들 스스로가 텍스트의 심층을 파고 들어감과 동시에 텍스트에 대한 해석을 바탕으로 자신의 삶에 대한 비판적이고 반성적인 이해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이어야 한다. 문학이 삶의 구체적 국면을 다룬다고 했을 때 문학을 읽는 작업은 텍스트 속에서 일련의 질서를 지닌 채 구현된 삶을 보다 구체적으로<sup>6)</sup> 해석하는 작업이 될 것이다. 그러한 문학이 교육되는 국면에서 그 해석은 단순히 텍스트에 대한 해석을 넘어서는 것이어야 한다. 비판적인 담론을 생산하는 사유로서의 비평은, 학습자 개개인이 호명된 주체가 아닌 스스로의 담론을 생산하는 주체로서 자리매김하도록 할 것이다.

이 연구는 텍스트로 생산된 결과물이 아니라 문학적 사유를 수행하는 방식으로서의 비평, 비판적 담론의 생산과정으로서의 비평에 주목하고자 했다. 텍스트의 표면적 의미 속에 가려져 있는 또 다른 의미들을 찾아가는 과정으로서의 비평은 곧 비판적 담론을 생산하는 사유에 대한 훈련이 될 것이다. 이러한 사유 방식이 문학비평에 그치지 않고 학습자가 부딪치는 모든 삶의 국면들에 대한 사유의 방식으로 확대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6) 여기서 '구체적'이라 함은 독자 자신에게 있어 텍스트가 구체적인 의미를 갖는 것으로 재구성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물론 이것은 텍스트가 단순히 학습자의 경험에 '호소'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텍스트에 대한 경험 또한 학습자에게 있어 중요한 경험이며, 그 경험이 학습자의 능동적이고 비판적인 해석에 힘입어 학습자 자신의 담론을 생산하는 데에까지 나아가야 함을 의미한다.

\* 본 논문은 2005. 5. 28 투고되었으며, 2005. 6. 5 심사가 시작되어 2005. 6. 14 심사가 종료되었음.

## 참고 문헌

### 1) 1차 자료

임화(1940), 『문학의 논리』, 학예사.

### 2) 국내 논저

- 구인환 외(1988), 『문학교육론』, 삼지원.  
김대행(1995), 『국어교과학의 지평』, 서울대학교출판부.  
김미혜(2000), 「비판적 읽기 교육의 내용 연구」, 서울대 석사.  
김성진(2004), 「비평 활동 교육의 내용 연구」, 서울대 박사.  
김영희(1993), 『비평의 객관성과 실천적 지평』, 창작과비평사.  
김윤식·김현(1996), 『한국문학사』, 민음사.  
김윤식·정호웅 공저(1993), 『한국소설사』, 예하출판사.  
도정일(1994), 『시인은 숲으로 가지 못한다』, 민음사.  
신두원(1991), 「임화의 현실주의론 연구」, 서울대 석사.  
유문선(1995), 「신경향파 문학비평 연구」, 서울대 박사.  
윤여탁(1998), 『시교육론 II』, 서울대출판부.

### 3) 국외 논저

- 노버트 메클렌부르크, 허창운 옮김(1991), 『변증법적 문예학과 문학비평』, 동서문학사.  
데이빗 호이, 이경순 옮김(1988), 『해석학과 문학비평』, 문학과지성사.  
레먼 셸던, 김용규 옮김(1995), 『비평과 객관성』, 백의.  
레이먼드 윌리엄즈, 이일환 옮김(1982), 『이념과 문학』, 문학과지성사.  
로버트 솔즈, 김상욱 옮김(1995), 『문학이론과 문학교육』, 하우출판사.  
루이 알튀세르, 김동수 옮김(1991), 『아미앵에서의 주장』, 솔.  
에버레트 라이머, 김석원 옮김(1982), 『학교는 죽었다』, 한미당.  
올리비에 르블, 홍재성·권오룡 옮김(1994), 『언어와 이데올로기』, 역사비평사.  
쥘르즈 플레 위음, 김봉구 옮김(1979), 『현대비평의 이론』, 흥성사.  
제라르 델포·안느 로슈, 심민화 옮김(1993), 『비평의 역사와 역사적 비평』, 문

학과지성사.

- 테리 이글턴·프레드릭 제임슨, 유희석 옮김(1991), 『비평의 기능』, 제3문학사.  
토니 베네트, 임철규 옮김(1991), 『형식주의와 마르크스주의』, 현상과 인식.  
파울로 프레이리, 성찬성 옮김(1995), 『페다고지—억눌린자를 위한 교육』, 한마당.  
피에르 마슈레, 배영달 옮김(1994), 『문학생산이론을 위하여』, 백의.  
피에르 지마, 정수철 옮김(1996), 『문학의 사회비평론』, 태학사.

■ Abstract

## A Study on Literary Criticism as Productive Thinking and Literary Education

Kim, Mi Hye

Language education should cultivate the reader's ability to reread the text in the view of the reader himself, not being satisfied with teaching him to read it as it is. That is because to read the text should be ultimately to understand and reflect on the life of the reader himself. Following this view, this study pays attention to literary criticism as productive thinking. Lim Hwa as a critic let us see that literary criticism is the critical and reflective interaction between the text and the reader.

By analyzing Lim Hwa's criticism, this study aimed of showing the practice of productive thinking of the reader who produces his own discourse on the text and life. Lim Hwa who was both critic and theorist criticized the works of Lee Sang, Park Thea-Won, Lee Tae-Joon, Kim Nam-Chon, etc from the point of view of realism. To him, practical criticism was also the activity to produce his own discourse on the text and reinforce his theory and ideology.

In short, literary criticism is the activity of discovering deep meanings of the text and producing the second discourse. Learners could exercise the ability of productive thinking through criticism on the literary texts. And this productive thinking could be extended to the whole life.

[Key Words] literary criticism, literary education, critical and reflective interaction,  
Lim Hwa's criticism